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 假借論을 중심으로 -

양원석**

|| 차례 ||

- I 서론
- II. 漢字學史의 假借論
- III. 茶山의 假借論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字學 가운데 특히 그의 假借論에 대해 검토하여 그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역대 한자학사에서 가차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는 다산의 가차론이 지니는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다산의 가차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산 가차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은 가차를 경서 해석의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즉 가차의 방법으로 글자를 설명하는 경우 대부분 경서 字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둘째, 허신은 ‘本無其字의 가차’를 제시하였지만 다산은 이뿐 아니라 ‘本有其字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393)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의 가차와 引伸·通假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가차의 개념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견해는 다산이 가차를 설명할 때에 本義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茶山, 丁若鏞, 字學, 假借, 引伸.

1. 서론

본 논문은 茶山 丁若鏞(1762~1836)의 字學 가운데 특히 그의 假借論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산의 자학 관련 자료 중에서 假借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산 가차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그동안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¹⁾ 본 논문은 그 세 번째 성과에 해당한다.

기존에 진행했던 연구에서는 다산이 가진 ‘자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으며, 또 ‘六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아울러 ‘다산 자학 연구의 범위’를 설정해 보았으며 또 ‘字學과 經學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다산의 인식을 확인하고 문집에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산의 문집 『與猶堂全書』를 두루 검

1) 양원석, 「茶山 丁若鏞의 字學에 대한 인식 및 六書論」, 『대동한문학』 제48집, 대동한문학회, 2016, pp.223-260.; 양원석, 「茶山 丁若鏞의 字學에 대한 연구 - 茶山 字學 연구의 범위 및 經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54집, 대동한문학회, 2018, pp.177-203.

토하면서 자학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그 결과 다산의 자학 관련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는 六書論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산은 육서론 중에서도 특히 諧聲과 假借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또 이를 경서 해석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다산의 육서론 가운데 특히 그의 假借論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다산의 육서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본고는 육서론 가운데 가차론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산의 가차론이 역대 한자학사에서 지니는 위상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다산 자학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한 부분을 온전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II장에서는 다산의 가차론에 대해 본격적인 고찰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자학사의 주요 인물, 즉 許慎, 鄭樵, 段玉裁 등이 가차의 개념과 성격 등에 대해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이는 다산 가차론이 지니는 특징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작업에 해당한다.

III장에서는 다산의 가차론 자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해 보겠다. 이를 위해 다산의 문집에서 언급된 가차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하면서 그 전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산의 諧聲에 대한 검토는 추후 별도의 지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허신이 ‘本無其字의 가차’의 사례로 제시한 글자인 令과 長은 假借가 아닌 引伸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令과 長은 본의와 상관이 없는 假借義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의에서 파생된 引伸義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신의 가차에 대한 정의와 예시, 즉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는 후대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현대학자 魯實先(1913~1977)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른바 引伸은 본뜻에 근거하여 파생하여 풀이하는 것이고, 假借는 같은 음을 가진 글자를 서로 빌리는 것이다. 그 원류는 각기 다르지만 許愼은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원류로 삼았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인신과 가차에 대한 그릇된 설을 가지게 된 까닭이니, 이에 근거하여 육서의 가차를 해석하면 안 된다.⁵⁾

즉 본뜻에 근거하여 의미를 파생시킨 引伸과 같은 음을 가진 글자를 빌리는 假借는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신의 『설문해자』 「서」의 언급으로 인해 인신과 가차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허신이 ‘本無其字의 가차’를 언급하면서 그 예시로 인신에 해당하는 글자인 令과 長을 제시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인신과 가차에 대해 현대학자 裘錫圭(1935~)는 “清代 이전의 문자학자 대부분은 인신을 가차 안에 포함시켰다. ‘詞義引伸’과 ‘借字表音’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인신과 가차를 구분하지 않았다.”⁶⁾라고 언급하였다. 즉 인신과 가

5) 魯實先, 『假借遡原』, 臺北: 文文出版社, 1978, p.32, “所謂引伸者, 乃資本義而衍釋, 所謂假借者, 乃以同音而相假. 是其原流各異, 而許氏乃合爲同原. 此近人所以有引伸假借之謬說, 蓋不可據以釋六書之假借也.”

차는 분명 다른 개념이지만 清代 이전까지 한자학 관련 문헌에서는 대부분 혼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가치를 포함한 육서의 개념을 최초로 설명한 허신의 공은 한자학사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가치의 개념과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후대에 가치와 인신, ‘本無其字的 假借’와 ‘本有其字的 假借’⁷⁾의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역대 한자학사의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鄭樵의 假借論

허신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가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宋代 鄭樵(1104~1162)의 假借論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정초는 총 200권에 달하는 역사서 『通志』를 저술하였는데,⁸⁾ 이 가운데 卷31부터 卷35까지의 내용이 『六書略』이다. 『육서략』은 육서의 개념과 성격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 및 자신의 육서 개념에 근거하여 한

6)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 p.103.

7) ‘本無其字的 假借’는 그 단어의 뜻은 있으나 그 의미를 나타내주는 글자가 없는 경우에 음이 같은 기존의 글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치는 引伸과 달리 本字의 자형만 빌린 것으로 의미상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本有其字的 假借’는 어떠한 의미를 표현할 문자 즉 本字가 있는데도 이를 쓰지 않고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기존의 다른 글자를 대신 쓰는 것을 말한다. 清代부터 ‘本無其字的 假借’와 구별하기 위하여 ‘本有其字的 假借’를 通用假借(通假)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규갑, 『한자학교정』, 차이나하우스, 2009, pp.156-157.]

8) 『通志』는 三皇에서 隋 恭帝까지의 역사를 『史記』를 계승하여 紀傳體로 쓴 通史이다. 이 거질의 역사서에서는 중국 역대의 정치·제도·문물·역사·인물 등 다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pp.189-190.]

자를 분류하여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초는 육서 가운데 특히諧聲과假借에 주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卷33 전체가 해성에 대한 내용으로, 卷34 전체가 가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또 해성과 가차의 분류를 매우 상세하게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⁹⁾

정초는 가차를 12개의 경우로 세분하였는데, 이는 다시 ‘有義之假借’ 4가지와 ‘無義之假借’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⁰⁾

有義之假借：同音借義，協音借義，因義借音，因借而借。

無義之假借：借同音不借義，借協音不借義，語辭之借，五音之借，三詩之借，十日之借，十二辰之借，方言之借。

이처럼 정초는 가차에 대해 본뜻과의 관련성을 가지는 가차[有義之假借]와 본뜻과의 관련성이 없는 가차[無義之假借]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有義之假借’는 앞에서 언급한 인신에 해당하고, ‘無義之假借’는 앞

9) 諧聲에 대한 정초의 견해는 주로 다음에서 볼 수 있다.

鄭樵, 『通志』卷31, 『六書略』‘六書序’, “五曰諧聲, 母主形, 子主聲者, 諧聲之義也, 然有子母同聲者, 有母主聲者, 有主聲不主義者, 有子母互爲聲者, 有三體主聲者, 有諧聲而兼會意者, 則曰聲兼意.”

鄭樵, 『通志』卷33, 『六書略』‘諧聲’, “諧聲與五書同出, 五書有窮, 諧聲無窮, 五書尙義, 諧聲尙聲. 天下有有窮之義, 而有無窮之聲, 擬之而後言, 議之而後動者, 義也. 不疾而速, 不行而至者, 聲也. 作者之謂聖, 述者之謂明, 五書, 作者也. 諧聲, 述者也.”

10) 鄭樵, 『通志』卷31, 『六書略』‘六書序’, “六曰假借, 不離音義, 有同音借義, 有借同音不借義, 有協音借義, 有借協音不借義, 有因義借音, 有因借而借, 有語辭之借, 有五音之借, 有三詩之借, 有十日之借, 有十二辰之借, 有方言之借.”

鄭樵, 『通志』卷34, 『六書略』‘假借’, “然就假借而言之, 有有義之假借, 有無義之假借, 不可不別也. 曰同音借義, 曰協音借義, 曰因義借音, 曰因借而借, 此爲有義之假借. 曰借同音不借義, 曰借協音不借義, 曰語辭之借, 曰五音之借, 曰三詩之借, 曰十日之借, 曰十二辰之借, 曰方言之借, 此爲無義之假借.”

서 언급한 가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초는 가차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으며 또 각각에 해당하는 한자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초의 견해는 당시까지의 한자학사에서 육서 그리고 가차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하면서 그 성질을 탐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초의 견해가 제시된 이후 宋·元·明 시기에는 가차를 비롯한 육서가 한자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다. 즉 『설문해자』의 전통을 넘어서 육서를 핵심으로 하는 육서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元 戴侗의 『六書故』를 비롯하여 元 楊桓의 『六書統』과 『六書溯源』, 元 周伯琦의 『說文字原』과 『六書正譌』, 明 趙撝謙의 『六書本義』, 明 魏校의 『六書精蘊』 등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육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자학 연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¹¹⁾

清代에는 說文學이 다시 부흥함에 따라 정초 등의 육서 관련 저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唐蘭(1901~1979) 등의 현대학자들은 정초에 대해 ‘허신 이후의 모호했던 육서 이론을 대대적으로 發揚하고 육서를 한자학 연구의 핵심적 지위로 확정하여 한자학사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¹²⁾

3. 段玉裁의 假借論

주지하다시피 清代는 한자학의 전성 시기였고, 이에 따라 한자학 관련 연구자와 저술이 매우 많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가차를 비롯한 육

11) 黨懷興, 『宋元明六書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303.

12) 黃德寬·陳秉新 著, 河永三 譯, 『漢語文字學史』, 동문선, 1990, pp.187-195.

서 관련 논의는 戴震, 孔廣居, 王筠, 段玉裁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단옥재의 가차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段玉裁(1735~1815)는 허신이 제시했던 가차의 개념, 즉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에 대해 『說文解字注』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託’이란 ‘맡기다’의 뜻이다. 같은 음을 가진 글자에 기탁하는 것이니, 즉 사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글자에 기탁하여 그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漢나라 사람들은 縣令을 令長이라 불렀는데, 萬戶 이상의 縣을 통치하는 사람을 令으로 萬戶 이하를 통치하는 사람은 長으로 불렀다. 令의 本義는 ‘發號’이고, 長의 本義는 ‘久遠’이다. 縣令과 縣長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없자, ‘發號’와 ‘久遠’의 의미에서引申하여 縣令과 縣長의 의미를 갖는 글자로 삼았으니, 이러한 것이 바로 假借이다.¹³⁾

허신이 언급한 ‘음이 같은 글자에 그 뜻을 실는 것[依聲託事]’에 대해 단옥재는 ‘같은 음을 가진 글자에 기탁하는 것[依傍同聲而寄於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허신이 가차의 사례로 들었던 令과 長에 대해서 令의 本義인 ‘명령[發號]’과 長의 本義인 ‘오래됨[久遠]’에서引申되어 ‘縣令’과 ‘縣長’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단옥재의 설명을 따르면, 허신이 가차의 예로 제시한 令과 長은 假借가 아닌 引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의 단옥재의 설명에 의해 허신이 언급

13) 段玉裁, 『說文解字注』卷15, “託者, 寄也. 謂依傍同聲而寄於此. 則凡事物之無字者, 皆得有所寄而有字. 如漢人謂縣令曰令長, 縣萬戶以上爲令, 減萬戶爲長. 令之本義, 發號也, 長之本義, 久遠也. 縣令縣長, 本無字, 而由發號久遠之義引申展轉而爲之, 是爲假借.”

하였던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의 정확한 의미와 그 문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단옥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차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제시하였다.

가차의 시작은 本無其字의 경우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에 이르러서 本有其字의 경우도 대부분 假借라고 하였다. 또 그 후에 후대에 이르러서는 잘못된 글자[譌字]들도 또한 스스로 가차에 의탁하기를 힘쓰고 있다.¹⁴⁾

허신이 언급한 ‘本無其字의 가차’는 가차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本有其字의 가차’가 등장하며 또 잘못된 글자들도 가차에 의탁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즉 허신이 제기한 ‘本無其字의 가차’와 舍과 長에서 볼 수 있는 ‘本有其字의 가차’에 대해, 단옥재는 시간상의 선후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引伸과 假借를 모두 ‘餘義’라고 하였다.¹⁵⁾

그 本義를 지켰으나 그 餘義를 버리는 것은 그 잃음이 굳은 것이고, 그 餘義를 익혔으나 그 本義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 잃음이 가리워진 것이다.¹⁶⁾

즉 글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本義를 이해하면서 餘義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고, 餘義를 이해하면서 本義를 이해하지 않

14) 段玉裁, 『說文解字注』卷15, “大抵假借之始, 始於本無其字. 及其後也, 既有其字矣, 而多爲假借. 又其後也, 且至後代, 譌字亦得自冒於假借.”

15) 胡奇光 著 李宰碩 譯, 『中國小學史』, 동문선, 1997, p.367.

16) 段玉裁, 『經韻樓集』卷1, “守其本義而棄其餘義者, 其失也固, 習其餘義而忘其本義者, 其失也蔽”

는 것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本義 뿐 아니라 여기서 가차되거나 인신되어 생기게 된 뜻, 즉 餘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당 글자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本義와 더불어 假借義, 引伸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漢의 許慎, 宋의 鄭樵, 淸의 段玉裁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한자학자들의 가차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물 위주로 서술함에 따라 각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각 시대에 가차와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허신이 가차의 개념과 예시를 제시한 이래로, 가차와 인신, 가차의 세부 분류, ‘本無其字의 가차’와 ‘本有其字의 가차’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III장에서 는 이상의 쟁점을 위주로 다산의 가차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¹⁷⁾

III. 茶山의 假借論

茶山이 假借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그것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장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산의 문집 『與猶堂全書』에서 가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수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여유당전서』에서 가차에 대해 언급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7) 한편 朝鮮에서도 다산을 비롯하여 洪良浩, 沈有鏞, 魏伯珪, 그리고 正祖의 「文字策問」과 諸臣의 對策文 등에서 가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조선의 가차론 및 육서론을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대상이다.

첫째는 六書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중 하나인 가차를 단순하게 제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어떤 문자에 대해 해설하면서 이를 가차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먼저 첫째의 경우 즉 육서의 하나인 가차에 대해 단순하게 제시한 사례는 다음의 『小學珠串』 「六之類四十條·六書」에서 볼 수 있다.

六書는 문자의 법칙이다. 첫 번째는 象形[예를 들면 ‘日’과 ‘月’과 같은 부류의 글자], 두 번째는 會意[예를 들면 ‘武’와 ‘信’과 같은 부류의 글자], 세 번째는 轉注[예를 들면 ‘考’와 ‘老’와 같은 부류의 글자], 네 번째는 處事[예를 들면 ‘上’과 ‘下’와 같은 부류의 글자], 다섯 번째는 假借[예를 들면 ‘令’과 ‘長’과 같은 부류의 글자. 한 글자가 두 가지로 쓰임.], 여섯 번째는 諧聲[예를 들면 ‘江’과 ‘河’와 같은 부류의 글자. 왼쪽이 뜻을 오른쪽이 소리를 나타냄.]이다. 이것들을 六書라고 한다. ‘六書’라는 명칭은 『周禮』에서 나왔다.[「地官·保氏」편의 문장. 육서의 名目은 鄭玄 註에 보임.]¹⁸⁾

다산은 육서를 ‘문자의 법칙[文字之法]’이라고 하였으며, 또 『周禮』 鄭玄 注에 근거한 육서의 순서와 명칭¹⁹⁾과 許慎의 『說文解字』 「敍」에서 제시한 육서에 해당하는 글자의 예시²⁰⁾를 부연하고 있다.

18) 丁若鏞, 『與猶堂全書』 雜纂集 卷25, 『小學珠串』 「六之類四十條·六書」, “六書者, 文字之法也. 一曰象形[日月類], 二曰會意[武信類], 三曰轉注[考老類], 四曰處事[上下類], 五曰假借[令長類, 一字兩用], 六曰諧聲[江河類, 左形右聲], 此之謂六書也. 六書之名, 出周禮[地官保氏文. 其目見鄭註.]”

19) 『周禮』 經文에 언급된 ‘六書’에 대해, 鄭玄은 ‘六書,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也.’라고 注하였다. (鄭玄 注, 陸德明 音義, 賈公彥 疏, 『周禮注疏』 卷40.)

20) 許慎, 『說文解字』 「敍」, “周禮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先以六書. 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 五曰轉注,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 令長是也.”

다음은 『牧民心書』 「禮典六條」에서 육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文翁이 일으킨 학문은 文學에 불과하다. 여기서 文學은 옛날 小學의 가르침이다. 소학의 가르침은 六書を 위주로 하는데, 象形·會意·轉注·假借·諧聲·指事가 바로 육서이다. 문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육서의 학을 먼저 힘써야 하는데, 육서의 학이 아직 캄캄한 우리나라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²¹⁾

小學의 가르침은 육서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서 육서에 해당하는 象形·會意·轉注·假借·諧聲·指事を 제시하고 있다. 또 “文學은 옛날 小學의 가르침이다. …… 문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육서의 학을 먼저 힘써야 한다.[文學者, 古者小學之教也. …… 欲興文學者, 六書之學, 其首務也.]”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문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육서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두 인용문은 육서의 개념을 언급하는 와중에 그중 하나인 가차를 제시한 경우일 뿐, 가차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산 가차론의 면모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六書는 文字의 법칙이다’, ‘文學은 옛날 小學의 가르침이다’, ‘문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육서의 학을 먼저 힘써야 한다’ 등의 내용을 통해 다산이 小學과 字學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둘째의 경우 즉 가차의 방법을 활용하여 문자 해설을 진행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유당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차와 관

21) 丁若鏞, 『與猶堂全書』 政法集 卷22, 『牧民心書』 「禮典六條」, “文翁興學, 不過乎文學. 文學者, 古者小學之教也. 小學之教, 六書爲主, 象形·會意·轉注·假借·諧聲·指事, 是謂六書. 欲興文學者, 六書之學, 其首務也. 況於吾東六書之學, 尙今昧昧者乎!”

런된 내용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가차 관련 내용의 출처, 그리고 가차의 방법으로 설명한 글자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假借로 설명한 글자
字義詩	性
答李汝弘	性
雅言覺非	踢
大學公議	絜
心經密驗	心
中庸講義補	道
孟子要義	理
論語古今注	栗, 數, 畫, 觚, 叩, 貫, 徹, 幾, 要, 泥.
尙書古訓	牙, 辰, 賦
梅氏書平	牙, 心
春秋考徵	壤
周易四箋	象, 夷
易學緒言	彖
喪禮四箋	祔, 辟
經世遺表	斛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산은 『여유당전서』에서 性, 踢, 絜, 心, 道, 理, 栗, 數, 畫, 觚, 叩, 貫, 徹, 幾, 要, 泥, 牙, 辰, 賦, 壤, 象, 夷, 彖, 祔, 辟, 斛 등의 글자를 가차의 방법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한 그 출처는 『論語古今注』, 『孟子要義』, 『尙書古訓』, 『周易四箋』 등 대부분 경서 관련 저술임을 볼 수 있는데, 즉 다산은 경서의 해석을 위해 글자 풀이를 진행할 때에 가차의 방법을 자주 활용하였다고 하겠다.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다산의 자학은 경서 해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²²⁾ 육서의 하나인 가차법을 통한

글자 풀이도 경서 해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허신은 ‘本無其字의 가차’를 주장하였는데, 단옥재의 설명에 따르면 허신이 ‘本無其字의 가차’의 예로 제시한 승과 長은 가차가 아니라 인신에 해당한다. 즉 허신은 ‘本無其字의 가차’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本無其字의 가차’와 ‘本有其字의 가차’의 개념을 혼동하였거나 이것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자학사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다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尙書古訓』 『堯典』편의 일부 내용이다.

내가 생각컨대, ‘辰’은五星의 總名이지 단지 水星을 오로지 일컫는 명칭이 아니다. 五緯(五星)의 밝음은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며 마땅히 그것을 나타내는 本字가 있었을텐데, 六書의 假借法에 따라 점차 그 原義를 잃어버렸다.²³⁾

金木水火土星을五星이라고 하는데 이五星을 총칭하는 단어로辰이 사용되고 있다. 원래辰은水星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五星의 총

22) 필자의 논문 「茶山 丁若鏞의 字學에 대한 연구 - 茶山 字學 연구의 범위 및 經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대동한문학』 54, 대동한문학회, 2018, pp.177-203)에서 “다산은 자학의 목적을 글자의 本義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경전 해석에 연계시키자면 곧 經傳에 나오는 字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자학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학은 글자의 本義를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이러한 본의 파악은 經傳 字句의 훈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전 훈고를 위해서 자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23)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集 卷22, 『尙書古訓』 卷1 「堯典」, “竊嘗疑, 辰者, 五星之總名, 不但水星之專名也. 五緯之曜, 非月非星, 宜有本字, 因六書假借之法, 漸失原義耳.”

명으로 쓰게 되었다. 다산은五星을 나타내는本字가 원래 있었을텐데 그本字가 원뜻을 잃어버리면서 쓰이지 않게 되자, 가차의 용법에 따라辰을 빌려서五星之總名으로 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五星을 의미하는 글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차의 용법에 따라辰을 빌려서五星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신이 언급했던 ‘本無其字의 가차’에 해당한다.

그러나『여유당전서』의 가차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처럼 ‘本無其字의 가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本有其字의 가차’ 즉 引伸의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다산은 이를 ‘가차’라고 칭했으니, 다산이 생각하는 또 지칭하는 가차는 ‘本有其字의 가차’ 즉 引伸과 通假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孟子要義』「告子 上」에서 理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理자의 뜻을 講究해 볼 수 있다. 理는 본래 옥이나 돌의 結[脈理]이다.[徐鉉이 말했다.] 옥을 다듬는 사람은 그 結을 살핀다. 그러므로 다시 假借하여 ‘다스림[治]’[形符는 玉이다.]를 理자의 뜻으로 삼았다.『淮南子』에 ‘璧玉을 겹쳐두었더니 結이 없어졌다.’[覽冥訓]라고 하였고,『禮記』「內則」에 ‘얹게 자를 때는 반드시 그 結을 끊어야 한다.’[살결이다.]라고 하였는데 …… 이것들은 모두 ‘結[脈理]’의 뜻을 가진 理이다.『中庸』에 ‘文理를 정밀하게 살핀다.’라고 하였고,『樂記』에 ‘음악은 倫理와 통한다.’라고 하였는데 …… 이 또한 ‘脈理’의 뜻이다.『詩經』「大雅」에 ‘구획하고 다스린다’라고 하였고,『左傳』에 ‘천하를 구획하여 다스린다.’[成公二年]라고 하였는데 …… 이것은 모두 ‘다스림[治理]’의 뜻을 가진 理이다. 다스리는 것은 獄事を 다스리는 것만한 것이 없으므로 獄官을 理官라고 한다.『禮記』「月令」에 ‘理官에게 명하여 살피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 여기에 쓰인 理는 모두 獄官의 뜻이다. 어찌 형체가 없는 것을 理라고 하고 형체가 있는 것을 氣라고 하며, 天命의 性を 理라고 하고 七情의 드러남을 氣라고 하겠는가.『주역』

에 ‘가운데의 中德이 理와 통한다’라고 하였고, 또 ‘易의 도는 쉽고 간단해서 천하의 이치가 얻어진다’라고 하였으며, 『禮記』 「樂記」에 ‘천리가 민멸되었다’라고 하였다. …… 조용히 글자의 뜻을 궁구해 보면 모두 脈理·治理·法理의 뜻을 假借하여 만든 글자이니[法理는 곧 獄理이다.] 곧바로 性을 理라고 하는 것이 옛기록에 근거가 있는가?²⁴⁾

理는 ‘從玉, 理聲’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자로 ‘玉石을 다듬다’가 본뜻이다.²⁵⁾ 理는 이 본뜻에서 파생되어 ‘결[脈理]’, ‘다스리다[治理]’, ‘옥사를 다스리다[法理]’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쓰인 용례의 출처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를 들면 治)가 이미 있음에도, 理는 본의와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파생되어 ‘다스리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本有其字의 가차’ 즉 引伸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산은 이처럼 引伸義를 가지는 경우를 本義와 비교하며 언급하면서 ‘모두 脈理·治理·法理의 뜻을 假借하여 만든 글자이다.[皆脈理治理法理之假借爲文者]’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산이 말한 假借는 ‘本有其字의 가차’ 즉 引伸과 通假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24)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集 卷6, 『孟子要義』 「告子上」, ‘富歲子弟多賴, 麤粳易牙章’, “理字之義, 因可講也. 理者, 本是玉石之脈理.[徐鉉云] 治玉者, 察其脈理, 故遂復假借, 以治爲理.[字從玉] 淮南子云, ‘璧襲無理.’[覽冥訓] 內則云, ‘薄切之, 必絕其理.’[肉理也] …… 皆是脈理之理. 而中庸云, ‘文理密察.’ 樂記云, ‘樂通倫理.’ …… 仍亦脈理之義也. 大雅云, ‘乃疆乃理.’ 左傳云, ‘疆理天下.’[成二年] …… 此皆治理之理也. 治理者, 莫如獄. 故獄官謂之理. 月令云, ‘命理察.’ …… 皆獄官也. 曷嘗以無形者爲理, 有質者爲氣, 天命之性爲理, 七情之發爲氣乎. 易曰, ‘黃中通理.’ 又曰, ‘易簡, 而天下之理得矣.’ 樂記云, ‘天理滅矣.’ …… 靜究字義, 皆脈理治理法理之假借爲文者,[法理卽獄理] 直以性爲理, 有古據乎.”

25) 許慎, 『說文解字』 卷1, “理, 治玉也. 從玉里聲.”

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論語古今注』 「八佾」에서 栗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²⁶⁾

그러나 밤은 그 열매가 玉처럼 견고하고 조밀하기 때문에 사람의 견고하고 조밀한 것을 일러 栗이라고 한다. 『尙書』 「虞書」의 ‘寬而栗[넓고 조밀하다]’라는 것이 그 예이다. 공경하고 삼가면 그 마음이 정제되고 단속되기 때문에 이를 일러 ‘齊栗’이라고 한다. ‘齊栗’이 지나친 것을 일러 ‘戰栗’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은 六書 중의 假借의 법칙이다.²⁷⁾

이는 『論語』 「八佾」의 “宰我が 대답해 말했다. …… 周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썼는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하게 하려는 것이다.[宰我對曰, …… 周人以栗, 曰使民戰栗.]”에서 ‘밤’을 뜻하는 ‘栗’을 ‘두려워 떨다[戰栗]’의 의미로 이해한 것에 대해 다산은 이를 假借의 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다산이 언급한 栗의 본뜻이 파생·인신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栗의 본뜻은 ‘밤’ → 밤 열매는 견고하고 조밀하므로 栗은 사람의 견고하고 조밀함을 뜻함 → 공경하고 삼가면 그 마음이 정제되고 단속되므로 이를 ‘齊栗’이라 함 → ‘齊栗’이 지나친 것을 일러 ‘戰栗’이라 함.

이처럼 栗은 ‘밤’이라는 본뜻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파생되어 ‘두려워 떨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산은 “戰栗’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은 六書 중의 假借의 법칙이다.[謂之戰栗, 此六書假借之法也.]”라고

26) 양원석, 『茶山 丁若鏞의 字學에 대한 인식 및 六書論』, 『대동한문화』 제48집, 대동한문화회, 2016, pp.246-247.의 내용 중의 오류를 수정하고 여기에 다시 인용하였음.

27)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集 卷8, 『論語古今注』 卷2 「八佾」, “然栗之爲果, 堅密如玉, 故人之堅密者謂之栗. 虞書之‘寬而栗’, 是也. 敬謹則其心齊束, 故謂之齊栗. 齊栗之過, 謂之戰栗, 此六書假借之法也.”

언급하였다. 즉 다산이 말한 가차는 앞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本有其字의 가차’ 즉 引伸이나 通假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자료에서도 다산은 ‘本有其字의 假借’와 引伸·通假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차’라고 칭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다산 가차론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산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자료가 있는데, 다음 『中庸講義補』의 내용을 보도록 하자.

지금 내가 살펴보건대, 글자가 가차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 그 假借字는 本義와 서로 비슷하다. 그러한 후에야 假借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글자 뜻이 원래 서로 비슷하지 않았다면 어찌 타당하지 않은 명칭으로 억지로 붙일 수 있겠는가? 道는 길이고, 길은 사람이 지나가는 바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누구인들 문을 지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 道를 따르려 하지 않는가?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이 따라야 하는 바가 道가 됨을 밝힌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하나의 길을 따라야 할 따름이다.²⁸⁾

다산은 어떤 글자가 가차의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그 가차자는 本義와 연관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가차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례로 『中庸』 제1장의 “道也者, 不可須臾離.”의 道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道’는 원래 ‘길’이라는 뜻 → 이 길은 사람이 항상 지나가는 바 → 사람이 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듯이, 사람이 항상 지나가는 바인 道를

28) 丁若鏞, 『與猶堂全書』經集 卷4, 『中庸講義補』, “今案, 字有假借, 亦其本義相近, 然後乃得假借. 若其字義原不相類, 豈得強冒之以不當之名乎? 道者, 路也. 路者, 人所由也. 故孔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明人所由爲道也. 自生至死, 由此一路而已.

따라야 함²⁹⁾ → 사람이 항상 따라야 하는 바가 바로 道.

요컨대 道는 원래 ‘길’이라는 本義를 가지고 있고, ‘길’이라는 의미와 연관을 가지면서 인신되어 ‘사람이 항상 따라야 하는 도리’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가차의 용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道에 대한 글자 풀이 방법, 그리고 ‘글자가 가차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 그 假借字는 本義와 서로 비슷하다. 그러한 후에야 假借라고 할 수 있다.[字有假借, 亦其本義相近, 然後乃得假借.]’라는 언급을 통해, 다산은 本義와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파생된 글자, 즉 인신에 해당하는 글자도 가차의 범위에 포함시켰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글자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의 본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요시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³⁰⁾

IV. 결론

이상에서 가차의 개념 및 한자학사의 주요 학자들의 가차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았으며, 다산의 『여유당전서』에서 언급된 가차 관련 자료를

29) 『論語』 「雍也」, “子曰,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30) 다산의 原義·本義 중시의 입장은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丁若鏞, 『與猶堂全書』 詩文集 卷19, 「答李汝弘載毅」, “東人創造畚字, 會意·指事, 必以水田爲畚, 此原義也. 於是論物理者指之曰: ‘畚者, 有形之物, 畚者, 氣也.’ 其言未嘗有謬, 而非畚字之原義. 鏞之所言者, 仁義禮智四字, 皆有原義, 先識其原義, 然後諸經所言, 可得本旨. 若不問造字家之原義, 先取論理家之轉說, 曰理, 曰氣, 曰體, 曰用, 則古經本旨, 多不相合, 此必然之勢也.”

丁若鏞, 『與猶堂全書』 經集 卷21, 『尙書古訓』 「尙書知遠錄序說」, “余惟讀書之法, 必先明詁訓. 詁訓者, 字義也. 字義通而後句可解, 句義通而後章可析, 章義通而後篇之大義斯見. ……”

수집·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산의 가차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산 가차론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산은 가차를 경서 해석의 방법론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즉 가차의 방법으로 글자를 설명하는 경우 대부분 경서 字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둘째, 허신은 ‘本無其字의 가차’를 제시하였지만 다산은 이뿐 아니라 ‘本有其字의 가차’와 引伸·通假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가차의 개념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러한 견해는 다산이 가차를 설명할 때에 本義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산의 자학 중에서 가차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다산 자학의 각론에 대해 하나 하나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축적한다면 다산 자학의 총체적 면모와 의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 논저〉

양원석, 「茶山 丁若鏞의 字學에 대한 인식 및 六書論」, 『대동한문학』 제48집, 대동한 문학회, 2016, pp.223-260.

_____,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 茶山 字學 연구의 범위 및 經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제54집, 대동한문학회, 2018, pp.177-203.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이규갑, 『한자학교정』, 차이나하우스, 2009.

胡奇光 著, 이재석 譯, 『中國小學史』, 동문선, 1987.

黃德寬·陳秉新 著, 하영삼 譯, 『漢語文字學史』, 동문선, 1990.

魯實先, 『假借遡原』,臺北: 文文出版社, 1978.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

黨懷興, 『宋元明六書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원전〉

丁若鏞, 『與猶堂全書』, 민족문화추진회, 2002.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景仁文化社, 1974.

丁若鏞,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許 慎, 『說文解字』

鄭玄 注, 陸德明 音義, 賈公彥 疏, 『周禮注疏』

鄭 樵, 『六書略』

戴 侗, 『六書故』

楊 恒, 『六書統』

楊 恒, 『六書溯源』

周伯琦, 『說文字原』

周伯琦, 『六書正譌』

趙撝謙, 『六書本義』

魏 校, 『六書精蘊』

段玉裁, 『說文解字注』

段玉裁, 『經韻樓集』

Abstract

A Study of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s
Graphonomy*

- centered on phonetic loan characters -

Yang, Won-s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Graphonomy - centered on phonetic loan characters(假借).

First, we summarized the concepts of phonetic loan characters and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about honetic loan characters in previous Chinese character studies. This can be said to be a prior work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asan's theory of phonetic loan characters.

Next, while conducting detailed research on Dasan's theory of phonetic loan characters in earnest, the contents were confirmed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e contents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asan's theory of phonetic loan characters are as follows: First, Dasan mainly used phonetic loan characters as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Second, Xu-Shen(許慎) presented '本無其字的假借', but Dasan including this also recognised '本有其字的假借' and '引伸'·'通假' more actively. This view can be confirmed that Dasan mostly emphasized the connection with Original meaning when describing phonetic loan characters.

Key Words :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Graphonomy, phonetic loan characters(假借).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 01025393)

양원석

소속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yang1st@korea.ac.kr

이 논문은 2021년 5월 23일 투고되어
2021년 6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6월 25일 게재 확정됨.